

바삭함에 귀여움 더했네

대전꿈돌이 누룽지 출시

대전시는 28일 대전관광공사, 티엔알컴퍼니(주)와 함께 꿈돌이 누룽지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브랜드 IP(꿈씨패밀리)를 일상 식문화와 접목해 기념·선물형 간식을 개발·유통하고, 관광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 로컬기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꿈돌이 누룽지’는 일상 식품인 누룽지의 담백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살리면서, 꿈씨패밀리 세계관과 ‘꿈돌이’ 캐릭터를 담은 박스 패키지로 수집·선물 가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편식공장은 대전 동구에 기반을 둔 전통과 자 전문 브랜드로, 쏘면·파베기·곡물과자 등 ‘핵 간식’ 라인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온 곳이다. 공식 채널을 통해 보리·쑥 등 우리 곡물 기반의 제품을 선보이며, 간결한 성분과 부담 없는 용량·구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꿈돌이 누룽지’는 11월 중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 하우스, T마트 등 대전 내 공공 판로처 및 편식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

이채봉 기자

태안군,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마침내 준공해

태안군 안면읍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이 마침내 준공됐다.

태안군은 지난 27일 안면읍 승언리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군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은 안면읍 승언리 산125번지 일원에 자리했으며, 총 연장 684m의 데크와 정자, 야간경관 조명, 조형물 등을 갖추고 있다.

가세로 군수의 민선7기 공약 중 하나로, 군은 공원 및 휴식공간이 적은 안면읍 주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하고 총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2021년 10월부터 공사에 돌입, 이날 준공식을 통해 4년 만의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승언2호 저수지 일원이 지난 2023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은 이번 저수지 수변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생태정화습지 조성하고 저수지 산책로 1.3km 조성, 수질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안면읍 시가지 오수 유입 방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BTL)을 진행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습지 공간을 마련, 안면읍이 안정적 생태기반을 갖춘 도시 생태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충남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연다!

‘충남 체육 구심점·도민 생활체육 산실’ 준공…28일 개관식, 내년 정식 운영



충남 체육의 구심점이자 도민 생활체육 산실이 될 충남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연다.

28일 개관식을 통해 준공을 안팎에 선언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도민 누구나 최신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8일 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체육계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예산군 삼교읍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내 2만 615㎡ 부지에 592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센터는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구성했으며, 연면적은 1만 3318㎡이다.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는 1만 1196㎡의 부지에 연면적 9857㎡ 지하 1·지상 2층 규모다.

수영장에는 50m짜리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설치해 3급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 체전 등을 치를 수 있다.

통합운영센터에는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의실, 의무실 등을 설치했다. 다목적체육관은

9419㎡의 부지에 연면적 3462㎡, 지하 1·지상 2층 규모로,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경기 진행이 가능하며, 다목적실도 배치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은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143면, 다목적체육관 39면 등 총 182면을 마련했다.

충남스포츠센터 운영은 충남체육회가 맡았다. 충남체육회는 이날 개관식 이후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개선 의견 등을 낼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점검·보완한 뒤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운영부터는 소정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용 방법과 강좌 수강 신청 등은 충남스포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스포츠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인프라로, 엘리트와 생활체육, 장애와 세대를 넘어 ‘함께 뛰는 충남체육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연결’ 올해 43커플 탄생했다

총 6회 행사 240명 참가…내년 민관협력 확대 개편

세종시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세종연결’을 통해 올해 모두 43커플이 탄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세종청년센터와의 협력으로 총 6회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행사 ‘세종연결’이 240명의 참여 속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건전한 만남 문화 조성하고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시는 미혼남녀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고자 지난해보다 행사 인원 참여 규모를 기존 80명에서 240명으로 세 배로 확대하고 개최 횟수도 2회에서 6회로 늘렸다. 올해 참가자 모집에만 1,360명이 몰리며 평균 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사 장소는 세종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카페 등 유휴 공간과 문화시설을 활용했다. 행사에서는 1대 1대화, 그룹 게임 등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돼 따뜻한 분위기를 풀었다.

이채봉 기자

지역주민 함께 찾아가는 자활가게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오는 30일 중구청 내 등나무 앞에서 중구지역 자활센터(센터장 김인희)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자활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활가게는 중구지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우수 자활생산품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홍보·판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해에도 많은 주민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는 호두과자제작소 상심당, The착한누룽지, 이태리마카롱, 달달카페, 착한푸드 등 7개 자활사업단이 참여해 호두과자, 누룽지, 수제마카롱 등 20여종의 다양한 자활생산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구지역자활센터는 2003년 개소 이래 저소득가구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 일자리 제공, 직업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립 지원과 자활사업 확

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중구지역자활센터에는 17개의 자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170여명의 지역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자활참여자들이 중심이 된 ‘호두과자제작소 상심당’을 신규 개소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상심당에서 제작한 꿈돌이, 야구공 모양의 호두과자가 독창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맛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찾아가는 자활가게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품질 좋은 제품을 지역주민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불어넣고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2025년 하반기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채봉 기자

‘일하는 기쁨’ 남부권·북부권에 문을 연다!

충청북도 옥천작업장 개소 : 10. 28.(화)…단양작업장 개소 : 11월 초(예정)

충청북도는 28일 옥천군에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을 새로 열고, 이어 11월 초 단양군에도 신규 개소를 추진하며, 도내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본격 확산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경력 단절, 육아, 학업 등으로 오랜 기간 일터에서 멀어졌던 청년과 여성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짧은 시간,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충북형 혁신 틈새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는 하루 4시간 이내, 주 3~4회 근무하며, 소규모 포장·조립·분류 작업이나 단순 사무·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달 새로 개소하는 옥천 작업장은 충북도립대학교 내에 마련돼 참여자들의 접근성과 근무 편의성을 높였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포장 및 출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다.

이로써 청주·진천·제천·음성에 이어 남부권 옥천과 다음 달 북부권 단양 작업장까지 개소하면, 총 11개소의 공동작업장에서 13개 기업, 190여 명이 근무하게 되며, 도 전역으로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9월 충북도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불과 두 달 만에 공동작업장 6개소를 추가하며, 단기간 내 사업기반을 2배 이상 확대한 가운데, ‘일하는 기쁨’ 사업은 단순 일자리 지원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지역사회 일자리 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도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은숙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옥천 작업장 개소는 기존 사업장의 성공 경험을 남부권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고용 기반을 마

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북부권 단양 작업장 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28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재)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충북 스마트농업 심포지엄’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해법으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마트농업, 변화하는 기후에 답하다’를 주제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농업환경 속에서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계·산업계·공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